

●대림 제 3주간

김수환 추기경님은 예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다.” 실로 우리는 머리로는 끝없이 옳은 일을 생각하여도 가슴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신이 미칠 듯이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기 위한 발버둥을 치면서 머리로는 반드시 끊어보겠다고 되뇌이면서도 가슴에서는 그것을 따를 결심이 무너지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엔가 얽매어 참 자유와 해방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삶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이 같은 억눌림 속에 신음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며 기쁨에 찬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 1)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분명히 밝히셨습니다(루카 4, 18~19).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물질적, 정신적 얽매임의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마음이 부서져 고통의 신음 속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국 땅이든 제 나라에서든 온갖 것에 잡혀간 이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세상 것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셨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인과 교부들도 이 자유와 해방을 크게 강조하여 영성생활의 목적은 인간 구원이며 해방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안셀름 그륀’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켰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자기 헌신에 주목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기쁨을 선포하시고, 이 같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살도록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뭇잎들도 자신의 잎을 버려야 겨울 북풍의 한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도 추악해 보이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려는 욕망을 보일 때입니다. 훌훌 털어 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낫춤입니다. 성탄은 낫춤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가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 예수님 보다 앞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의 가난과 극기와 정의로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에 찬 만족으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며 지키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 드리고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겸손을 보입니다.

이 같은 겸손이 있었기에, 내어 드림이 있었기에 세례자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을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작

아지려는 노력과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닐 때,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리는 자신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것이기에 그분께 내어 드리고 자신은 물러설 줄 알아야 아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이함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지키려고만 하였던 욕망, 자신이 빛 자체라 생각하였던 교만을 버릴 때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배광하 신부 <춘천 갯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대수롭지 않은 것의 힘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도 신명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실이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사에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기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다. 삶이란 결국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된다. 가치있는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다.

- 공병호의 《공병호의 초콜릿》중에서 -

* 삶이란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일을 얼마나 치열하게 신명을 바쳐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 ‘삶은 선택이다’고 말했죠? 삶은 기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오고 가는 기회들을 붙잡거나 놓치면서 삶의 길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대림에 바치는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천상은총이
우리에게 기쁨을 내리시어
위대한 예언자들 미리알고
에수임 오실것을 선포하였네
다가올 기쁜영광 미리알리는
진실한 예고소리 울려퍼지는
이아침 유난히도 빛을발하고
기쁨이마음에서 솟구치누나
사람들범죄한후 처음오심은
세상을 처벌하기 위함아니고
쓰리고아픈상처 싸매주시며
있었던 모든사람 구하심이네
세말에다시오심 예고하시니
심판날성인에게 상급주시려
행복한하늘나라 문을여시네
영원한하늘의빛이 미피치고
구원의아침새별 반짝이나니
찬란한천상빛이 우리를불러
천국의시민되라 초대하시네
에수님의당신만을 찾고있으니
당신의천주성을 보여주소서
그모습 영원토록 바라봐오며
세세에찬미노래 부르오리다.

아멘.

본 당 소 식

◎ 미사 안내

12월 24일(수) 성탄전야미사 오후 3시 - 본당
 12월 25일(목) 오전 11시 - 해밀턴 한인성당
 12월 31일(수) 송년미사 오후 3시 - 본당
 2009년 1월 1일(목) 신년미사 오후 3시- 본당

◎ 따뜻한 음악회밤 감사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열성으로 준비하여 화려했고 성공적인 음악의밤 공연을 가지게 해 준 한인 공동체에 성안토니다니엘성당에서 깊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우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성안토니다니엘성당에는 110%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한 공동체로서 우애를 다질 수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2009년 매일 미사 책 신청

2009년 매일 미사 책을 신청 받습니다.
 1년 \$48입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신청합시다.
 신청 및 문의 : 박재영(바오로) 형제님

◎2009년 교우 주소록 및 교적을 정리합니다

본당 설립을 맞이하여 교우 주소록과 교적을 재 정비합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교우 주소와 교적을 다시 확인하여 12월 21일 주일 까지 김근호(가를로) 형제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전례 봉사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각 구역장님은 전례봉사 희망자 명단을 12월 21일까지 김근호(가를로)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판공 성사 안내

16일 예수성심 / 17일 한맘 / 18일 해밀턴 판공성사표는 작성하시지 말고, 보속은 본당 내에 게시했으니 참조바랍니다.

본당은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 합니다.

◎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해밀턴 한인성당에서 주관하며, 2008년 12월 21일에 마감합니다.

◎ 교육관내에 평일미사 봉헌을 위해 교구와 협의 하에 소성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필요한 제구, 비품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설립준비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 바뇌기도회

12월 17일(수) 오후 7시30분-박순웅 형제님 덕

◎ 본당설립추진위 회의

12월 15일(월) 오후 7시3 본당 교육관

◎ 미사지향

본당에서 마련한 봉투에 작성하셔서 사무봉사자와 사목회 전례분과장을 통해 미사 전 제대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사무봉사자 (Secretary) : 이상희(세레피아)

◎ 2009년도부터 변경 · 시행될 사항입니다.

1. 평일미사 : 소성당
2. 세입세출 공고 : 매월 첫 주
3. 신임 사목회 구성 : 부활대축일에 공지에정
4. 예비자 방문교리교사 양성 예정
5. 가정방문 및 구역미사
6. 친교 : 식사 또는 다과
7. 상담 : 일주일 전에 전화로 신청

◎기증 안내

26 “ 평면 TV - 무명

2008년 12월 7일 현금 내역

주일현금: \$ 906.15

성전건립: \$ 235.00

교 무 금: \$ 300.00

Total: \$1441.15

키치너-워털루 한인천주교회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김직현 요한
 ☎ 519 219 1074

2008-49

2008. 12. 14.

대림 제 3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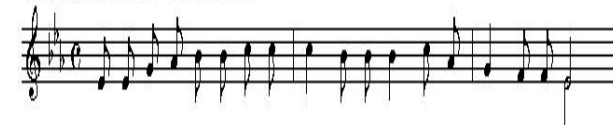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의견 수렴중입니다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상시 / 10회 종합교리 통신교리이수자 4회 특별교육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	1주일 전 신청
바뇌기도회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30
울뜨레야	매월 첫 주일 미사후

미 사 전 레

해 설 신 계 연 차주 해설 박 명옥

화 답 송

루카 1, 46-48, 49-50, 53-54 (◎미사61, 10-1)



(후렴)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 하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내 위에 내리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	체	(176)	믿음	소망 사랑
퇴	장	(39)	하나되게	하소서

독 서

12월 14일	오세종	오미경
12월 21일	이동기	이정숙
12월 28일	김용하	김희선

봉 헌

12월 14일	신상우	신계연
12월 21일	오세종	오미경
12월 28일	이동기	이정숙

복 사

12월 14일	류지현	노승범
12월 21일	구하람	김건우
12월 28일	류지흠	이현재

친 교

12월 14일	장미팀	12월 21일	백합팀
12월 28일	신비팀		